

인터뷰, 2006년 1월

안소연

안소연: 천경우씨의 작품은 우리나라에서 미학적으로 재고되어야 할 ‘초상사진’을 집중적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인물을 대상으로 작업하게 된 계기와 이유는 무엇인가?

천경우: 나는 새로운 곳으로 여행하기를 좋아하는데 그것은 낮선 풍경보다 낮선 곳의 사람들이 말하고 먹고 행동하는 모습을 구경하는데 흥미를 느끼기 때문이다. 공연장에서도 재미있는 장면이 펼쳐질 때 습관적으로 고개를 뒤로 돌려 공연에 반응하는 사람들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곤 한다.

모든 환경은 인간이라는 주체를 전제로 하고 있고 인간을 대상으로 하여 존재에 대해 사유한다. ‘초상’은 사진을 처음 배우던 시절부터 관심을 갖던 주제였는데 어떤 계기나 이유 보다는 나의 감성의 요구에 따랐던 것 같다. 한동안은 카메라 뒤에 숨어 일방적으로 한 인물을 바라보고 한 순간, 점과도 같은 수백 장의 이미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사진가의 역할에 회의를 느꼈다. 내가 알던 사진으로부터 흥미를 잃은 나는 마음 속 의문에 관한 답을 찾았고 초상사진의 역사에서 가장 흥미로운 발견을 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 처음 사진이 도입된 19세기에 당시 학자들이 이 새로운 미디어를 이미 14세기부터 초상화를 일컫던 ‘寫眞’이란 용어로 부르던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안소연: 그렇다면 당신의 사진은 인물의 무엇을 재현하고자 하는가? 초상화의 전통대로 외면에 깃든 인물의 내면 세계를 드러내는 일을 지향한다고 할 수 있나?

천경우: 인물의 내면을 드러내거나 어떤 성격을 찾아내려는 의도는 없다. 하지만 인물이 담긴 사진이 필연적으로 사람의 영혼과 연관되는 것은 분명한 듯 하다. 사진의 특성상 사진 속의 인물과 실제인물을 동일시 하는 것이 관습이 되었지만 아주 작은 시간의 덩어리에 담긴 한 인물의 사진은 단지 이미지일 뿐이며 그 인물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초상사진에서는 사진을 찍는 주체와 대상간의 관계와 교감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감상자는 그 관계의 결과물을 접하게 되는 것이며 그 인물의 개체성을 대하는 것은 아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인물의 내면은 어떤 형태로든 드러난다고 생각한다.

내가 지향하는 사진은 한눈에 읽혀지거나, 충격적으로 와 닿는 사진이 아니라 불명확해 보일 수도 있으나 관찰자가 서서히 스스로와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사진이다. 사진 속의 인물을 나 또는 누군가와 동일시하는 행위로부터 자유로워지길 바란다. 또한 작가의 손을 떠난 한 장의 사진은 고유의 생명을 갖는다고 믿는다.

안소연: 작가는 ‘시간’을 작품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 말한다. 사진은 찰나로써 부동의 견고함을 확보하는 반면 무수한 순간을 축적함으로써 오히려 덧없음(애매함)을 초래한다. 이러한 사진 속 시간의 아이러니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무엇인가? 또한 시간은 필연적으로 ‘존재’를 사유하게 한다. 예를 들어 불타스키의 이미지가 죽음을 언급한다면 당신의 이미지는 반대로 생생한 삶의 순간을 말한다. 시간을 체험하는 피사체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천경우: 사진이 ‘찰나의 표현’이라는 개념은 그 찰나가 얼마만큼의 시간의 양을 뜻하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는 속도의 개념이 문화, 역사에 따라 계속 변화되어 온 것과는 무관하지 않다.

사진이 생긴 이래 인류의 기억 체계가 현저히 변화되었으며 과거의 사건이나 죽은 사람을 서서히 잊는 자연스러움 대신에 다시 새롭게 과거로 들어가는 거대한 창을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좋은 변화인지는 모르겠다. 분명한 것은 세월의 흐름(덧없음)을 사진을 통해 확인하는 행위는 한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의 끝도 함께 감지하는 선물을 준다는 것이다. 시간의 한계(죽음)를 아는 것은 두려움의 지속이고 이를 멈추어 놓은 듯한 사진은 매혹적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셔터를 누르는 순간 거의 모든 것이 결정되는 사진의 찰나적 프로세스를 나는 다르게 받아들이고자 했다. 나의 사진에서 순간은 그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변화를 쌓아가는 시작점에 불과하다. 내게 흥미로운 사진은 부동적인 사진이 아니라 끊임없이 살아서 움직이는 사진이다. 사진이 현실적이고 명확해야 한다는 전형적인 개념은 내게 크게 흥미를 주지 않는다. 나는 불명확함, 애매함 속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 사람들은 매일 아침 욕실 거울 앞에서 타인에게 비추어질, 타인에게서 보고 싶은 나의 모습을 연습한다. 그리고 이미 사진이 무엇인지 잘 알기에 촬영되는 순간 스스로를 숨기고 보여준다. 이들에게 내가 사진을 한 시간 동안 촬영한다고 하면 처음에는 모두들 너무나 끔찍하고 힘들 것이라고 반응한다. 이것은 사진은 무조건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선입관과 오랜 시간 동안 죽은 듯 멈추어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오는 기우인 것 같다. 하지만 자신이 주도해 가는 의도적인 이 시간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은 놀라울 정도로 시간의 흐름을 잊는다. '사진'이 '시간의 상자'라는 생각을 잊을 수록 그 시간은 더 생생하게 채워진다.

몇 년 전 마드리드에서 있었던 퍼포먼스에서 시계를 한번도 가진 적이 없었던 이란 출신의 한 여인은 시계같이 정확히 주어진 시간의 흐름을 맞추어서 모두를 놀라게 한 일이 있다. 낮선 사람들끼리 규칙에 의해 약속된 시간 동안 몸을 맞대고 있어야 했던 퍼포먼스 후에는 갑자기 가까운 사이가 된 듯 사람들이 쉽게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다음날 참가자들 중 여러 명에게서 안부 전화가 왔었다.

안소연: 그러한 경험은 현대문화의 화두라 해도 과언이 아닌 '소통'과 '관계'의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당신은 작업을 통해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고 무엇을 소통하고자 하는가?

천경우: 나는 대상이 될 인물에게 가급적 동일한 역할을 설명하고 수동적인 사진의 대상(모델)이 아닌 시간을 능동적으로 채워가는 주체로 이끌려 한다. 그래서 나는 사진을 사냥(shooting)에 비유하는걸 좋아하지 않는다. 또한 나는 인물사진은 일방적일 수 없다고 생각한다. 피사체와 긴 시간을 함께 보냄으로써 느껴지는 일종의 공간의 기운과 교감을 어떻게 시각화할까 고민한다. 나의 사진 속에 담겨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에서 나와 마주했던, 나의 모습이 깊이 담겨있는걸 느낀다. 결국은 그들 모두 나의 자화상으로 내게 다가온다. 사람이 자기 얼굴을 스스로 볼 수 없는 것은 다행스러운 아이러니이다.

안소연: <Light Calligraphy>(2004)는 피사체가 빛으로 글을 쓰는 적극적인 행동이 개입된 작품이다. 작업의 주체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무엇인가?

천경우: 사람들에게 몇 가지 설명을 주시시키지만 근본적으로는 자유를 허용한다. 이 작업의 대상이었던 젊은 서예가들은 자신 나이의 숫자만큼의 시간(23-30분) 동안 허공에 붓과 먹 대신 라이트 펜을 이용해 이야기를 써내려 갔다. 종이 위에 쓰는 행위는 틀리거나 비뚤어진 글씨(짧은 과거)를 수정할

수 있는 반면 허공에 쓰는 보이지 않는 글쓰기는 직감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내부에 있는 것을 밖으로 많이 드러낼수록 주체이자 대상인 인물의 외면은 가려지게 된다. 나는 이들에게 스스로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잠시 제공해 주었을 뿐이고 그들은 허공과 빈 시간을 채워 주었다. 그들은 이 작품의 객체이자 주체이다.

안소연: 최신작 <In/finite>(2005)는 어떤 작업인가?

천경우: 다른 작업에 비해 직관에 많이 따른 작업이다. 한 공간에 일정한 시간(1시간) 동안 여러 명이 누워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동안 신체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변화를 일종의 시간의 풍경(timescape)으로서 담아내고자 했다. 사진이 늘 단편적인 이미지로 보여지고 동영상은 시퀀스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데 나는 사진에서 움직임의 효과가 아닌 흐름의 가능성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 사진들에서는 보일 듯 말 듯 하지만 온몸의 움직임들이 겹겹이 쌓여있다. 이 인물들은 일종의 샘플들이며 그들의 개성은 중요하지 않다. 따라서 익명성을 강조하기 위해 얼굴을 안보이게 하거나 눈을 감게 하였다. 나는 동영상이 처음과 끝이 정해지는데 비해 사진은 이런 틀을 오히려 개방해 둘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한다. ‘유한’한 시간의 점 안에 있는 ‘무한’이라고나 할까? In/finite 는 모든 인물들이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모은 것이다. 사운드를 함께 설치할 수도 있게 제작되었지만 이 내용을 관찰자가 꼭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 사진만이 보여줄 수 있는 추상성을 실험해 본 작업이기도 하다.

안소연: 당신의 사진은 인화지에 표현된 퍼포먼스라 할 수 있다. 최근엔 비디오 매체를 이용해서 퍼포먼스를 더욱 적극적으로 담아내고 있는데, 잘 알려진 <18x1 Minute>는 어떤 작품이며, 당신의 의도는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천경우: 퍼포먼스는 내게 확장된 사진이다. 하지만 퍼포먼스를 사진적으로 시각화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 사진 작업의 프로세스가 대부분 카메라를 들고 무언가를 찾거나 기다리는 행위이지만 이 작업은 특정한 개념, 준비된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 관객의 반응을 지켜보는 일이다. 대부분 사진 작업으로부터 발전된 아이디어이며 실시간과 관객이 필요할 때 한다.

<18x1 Minute>(2003-2004)은 무대 위에 9개의 의자와 비디오 카메라, 모니터를 설치해 놓고 서로 모르는 9명의 참가자의 지원을 받아 시계 없이 각자가 생각하는 18분을 보내게 하는 퍼포먼스이다. 인류가 아직까지 정의 내리지 못한 시간이 주관적으로 각자에게 다르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선명히 확인해주는 작업이다. 모르는 사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거나 카메라와 관객에 의해 영향 받는 무의식적 반응, 갈등이 얼굴이나 몸의 움직임에서 미세하게 보여졌고 매번 예측할 수 없는 흥미진진한 결과를 낳았다. 2년간 여러 문화권에서 행한 이 퍼포먼스의 결과, 특정한 문화적 배경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시간을 감지하는 것은 개인적인 차이와 특성이란 사실을 확인하게 해주었다. 사람들은 18분을 짧게는 10분, 길게는 60분이 넘게 느꼈다. 이 작품은 향후 오스트리아 텔레비전의 제안으로 보이지 않는 시청자를 실시간 방송에 참여하게 할 예정이다.

* 이 인터뷰는 독일 브레멘에 거주하는 작가와 이메일 교환을 통해 진행되었다.

Interview with Kyungwoo Chun

by Soyeon Ahn

Ahn: Your works are meaningful in that they concentrate on 'portrait photography' which needs to be reconsidered in Korea. What was the motive to make you decide to begin working with human figures?

Chun: I like traveling to new places. I'm more interested in looking at the people talking, eating, and doing things there rather than the landscapes of such unknown places. When I go to a theater and interesting scenes are presented on performance stages, I used to look behind for a while to see the faces of the audience responding to the performance.

Every environment assumes humans as its subjects, and we think about being with humans as objects of thinking. I have been interested in 'portrait' as the subject of photography ever since I started learning about photography. Rather than one specific reason or motivation, I think I just followed my intuition. For some time, I felt doubtful about the role of a photographer who looks at a person while hidden behind a camera and selects in a moment one out of hundreds of images, which look like numerous dots. I actually lost interest in photography in its conventional sense. Then, I made the most interesting discovery from the history of portrait photography, which answered a question that had been nagging me for some time. When photography was first introduced to Korea in the nineteenth century, scholars at that time called this new media 'Sa Jin (depiction of the truth),' a word which had been used to refer to portrait painting already since the fourteenth century. I don't think the choice of word was accidental.

Ahn: Then, what do you intend to represent from portraitees in your photographs? Do you intend to expose the inner world of individuals through their outward appearances as if the tradition of portrait painting aimed?

Chun: I have no intention of exposing the inner worlds or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s. However, it seems obvious that photographs of individuals are connected with their spirits. Because of the characteristics of photography, it is customary to identify the person in a photograph with a real person. I think, however, that a photograph of a person—because it captures only a moment of time—is nothing but an image, which can never replace the person. In portrait photography, the relationship and mutual response between the photographer and the portraitee is important. The viewers are seeing the results of such relationship. I think, in the passage of time, the inner world of an individual person will be naturally exposed in any form.

I intend to take photographs with which the viewers gradually develop their relationships with the portraitees, even though they may seem obscure. I believe that a photo which leaves the hands of the photographer has vitality of its own.

Ahn: You say that 'time' is the important element of your works. While a photograph secures the immovable solidity at a flash of a moment, it paradoxically creates the ambiguity by accumulating innumerable moments. What do you think of this irony about time in photographs? Time also inevitably makes think about 'being'. For example, if the image by Christian Boltanski mentions death, your images, on the other hand, tell us about moments of vivid life.

Chun: The concept of photography as 'expression of a moment' causes me to question how long a moment is. It concerns the concept of speed that has continuously changed, keeping abreast of culture and history. The human record system has been drastically changed with the invention of photography. It can be said that photography is a huge window through which we enter the past anew instead of forgetting past incidents or dead persons, little by little. However, I don't know if this change is good for us or not. What is clear is that confirming the flow of time through photographs brings with it a gift which allows an individual to perceive that there is an end of time for him/her too. To know the end of time, that is, death means that you continue to fear, and photographs which seem to stop the time can be seen as attractive. I have tried to take a different approach to the momentary process of photographing, when almost everything is determined at the moment of pressing the shutter. My photographs are nothing but a starting point to accumulate changes that occur within some period of time - photographs that are alive and constantly moving are of great interest to me, rather than frozen ones. I have almost no interest in the common idea that photographs should be realistic and clear. Rather, I experience a new world of obscurity and ambiguity.

In a performance in Madrid a few years ago, a woman from Iran who had never possessed a watch in her entire life surprised the audience by calling out the exact time, just like a watch. During the performance, all participants were required to be together with total strangers in front of the audience,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After the performance was over, they were reluctant to leave as if every member had suddenly become close friends with each other. The following day, some of them who participated in that performance called me to say hello.

Ahn: Such experiences made me to rethink about 'communication' and 'relationships' which are the main issues of modern culture. With whom do you intend to communicate, and what relationships do you like to create through your works?

Chun: I try to explain as consistent a role as possible to portraitees and want them to fill the time actively on their own, rather than play the passive part of a model in a photograph. For this reason, I don't like comparing photography to 'shooting.' I also think that taking portrait photographs should not be a one-way process. I think deeply over how I can visualize the energy and mutual response of the space I feel after spending a long time with portraitees. I see myself, myself which used to confront me, in the faces of many people in my photographs. After all, they all come to me as self-portraits of me. It is ironic but fortunate that we cannot see our own faces ourselves.

Ahn: Light Calligraphy (2004) is a work in which the portraitees participate actively by writing their own stories with light pen. What is the main component of this work?

Chun: I usually remind the portraitees several things, but in principle, I allow them freedom. Young participants wrote stories in the air with light pens instead of brushes and ink for as many minutes as their number of age, which in this case was 23 to 30 minutes. If you were writing on a piece of paper, you could correct what was written incorrectly, but if you are writing in the air, you have to follow your intuition. The more the portraitees expose what is inside of themselves through writing, the more their outward looks are covered. I merely provided them time and space with which they could tell stories to themselves for a short time, and it was they who filled the empty space and time. They

are both objects and subjects of Light Calligraphy.

Ahn: Please tell us about your most recent work, *In/finite* (2005).

Chun: Compared with other works, *In/finite* followed my intuition much more. For a given time (one hour), several portraitees were lying down and talking as they wanted, and I tried to depict in detail the changes that occurred to their physical bodies, thereby creating a kind of time-scape. Photographs are always seen as fragmentary images, while videos are sequential. In photographs, I want to find a potential for the flow, rather than the effect of movement. In these photographs, even the smallest movements of the bodies, which are normally hardly noticeable, are piled layer upon layer. Because these figures are basically samples,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each portraitee are not important. In order to emphasize anonymity, I had them hide their faces or let them close their eyes. While the beginning and the end of the videotaped images are determined, a photograph has no beginning or end, leaving them open. It may well be that photography is 'infinity' which lies in a spot of time that is 'finite'. *In/finite* is a collection of times in which a person tells us stories about his or her mother. There is also recorded sound of this duration as variable installation but, there is no need for viewers to know about the stories. Through this work, I experimented with abstraction, which photographs have the potentiality.

Ahn: Your photographs can be understood as performance on photographic paper. And you are realizing performance in moving images with the use of video media. Please tell us about *18x1 Minute* and the results of your intentions.

Chun: For me, performance is an expanded photograph. But I am not interested in visualizing performance in photographs. Most photographic processes involve carrying a camera, trying to discover something, or waiting for something. However, *18x1 Minute* is about a specific concept, things happening in a given space that has been prepared, and watching the response of the audience. This is a performance that is conducted with the help of nine participants who don't know each other. Nine chairs, a video camera, and a monitor are installed, and nine people spend 18 minutes as they would think about its length without looking at watch. This work clearly shows that time, which has not yet been defined by human beings, is a thing that each individual receives comparatively. Unknown neighbors influencing each other, subconscious responses that are influenced by a camera and the audience, and conflicts were shown in a delicate way, through the movements of faces or bodies. *18x1 Minute* produced unexpectedly exciting results every time it was run. Performed in various countries over a period of two years, *18x1 Minute* confirmed me the fact that regardless of the unique cultural background of a country or age, it is individual differences and characteristics that perceive time. Some people felt that 18 minutes was as short as ten minutes, while others felt that it as long as 60 minutes. At the request of a TV station in Austria, *18x1 Minute* will be performed with the participation of the audience, who are not seen in real-time broadcasting.

This interview was done through e-mails with the artist who lives in Bremen, Germany.

Jan. 2006